

2015 / 11 / 10 (TUE)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2%가량 하락. 고용지표 호조 등에 따른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와 중국의 수출이 4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중소형주 급락세.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게임주와 소프트웨어 업종이 3%대 하락하며 가장 부진.

수급측면에서는 동반매도세가 나타난 아프리카TV, 파티게임즈, 삼성SDS 약세.

종목별로는 해외 서비스 투자로 3Q15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게임빌이 4.7% 하락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97.05	-0.4%	-13.1%	-371 억	-272 억
(코) 인터넷	19,071.16	-4.1%	0.0%	-36 억	-4 억
(코) IT S/W&SVC	2,087.28	-4.4%	4.4%	-147 억	-56 억
(코) 소프트웨어	294.67	-4.2%	20.1%	22 억	-55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4,000	0.6%	-11.0%	76 억	-18 억
카카오	115,000	-3.4%	-7.0%	-25 억	2 억
한국사이버결제	28,400	-1.6%	6.4%	3 억	-7 억
KG이니시스	16,150	-5.3%	-9.8%	1 억	-9 억
KG모빌리언스	13,700	-6.8%	-5.8%	0 억	-3 억
사람인에이치알	20,750	-8.4%	85.3%	-2 억	-2 억
KTH	8,280	-5.6%	8.2%	-1 억	-3 억
아프리카TV	23,350	-6.8%	-12.7%	-4 억	-6 억
SK컴즈	6,340	-17.8%	-4.7%	1 억	0 억
KT뮤직	4,830	-2.2%	-10.4%	0 억	-1 억
다날	9,630	-3.2%	18.9%	-3 억	-
에스24	10,050	-3.8%	44.2%	0 억	-2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2,500	-2.1%	-14.0%	-30 억	-50 억
SK	256,500	-1.7%	20.1%	-57 억	-112 억
다우기술	21,700	-7.3%	81.6%	17 억	-19 억
포스코 ICT	4,805	-3.2%	-9.3%	-1 억	0 억
신세계 I&C	113,000	-2.2%	0.9%	-3 억	2 억
동부	5,540	-9.0%	120.7%	0 억	-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11,000	-0.7%	15.9%	48 억	11 억
컴투스	115,500	-4.0%	-4.2%	-94 억	14 억
NHN엔터테인먼트	56,200	-3.8%	-33.6%	1 억	-15 억
웹젠	29,600	-5.9%	1.9%	-23 억	-1 억
위메이드	39,550	-3.7%	4.6%	24 억	-11 억
선데이토즈	13,000	-4.8%	-24.4%	-4 억	-4 억
액토즈소프트	36,350	-6.8%	8.5%	-5 억	-14 억
게임빌	78,800	-4.7%	-34.7%	-13 억	3 억
네오위즈게임즈	19,600	5.4%	-13.8%	2 억	31 억
넥슨지티	13,950	-11.4%	9.4%	-1 억	-4 억
데브시스템즈	27,200	-3.2%	-43.0%	0 억	0 억
조이시티	25,950	-3.0%	28.5%	3 억	-2 억
파티게임즈	19,200	-6.6%	-26.3%	-3 억	-4 억
조이맥스	17,550	-6.1%	-35.7%	1 억	0 억
한빛소프트	7,410	-1.2%	28.0%	0 억	-
와이디온라인	6,460	-7.8%	39.8%	2 억	0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7,500	-4.0%	11.3%	-13 억	-3 억
더존비즈온	21,550	-0.2%	131.7%	-3 억	14 억
한글과컴퓨터	20,000	-3.6%	-1.0%	1 억	-3 억
골프존	91,400	-4.4%	262.0%	0 억	1 억
안랩	40,800	-2.9%	13.3%	-1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2,400	-5.3%	256.8%	14 억	0 억
슈프리카	18,950	-4.3%	-25.5%	-2 억	-1 억
갤럭시아컴즈	5,930	-1.2%	118.8%	0 억	0 억
지트리비엔티	12,050	-4.0%	249.3%	-1 억	-
MDS테크	22,450	-4.9%	8.5%	0 억	-2 억
오상자이엘	10,850	0.0%	-18.4%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9,960	-7.8%	37.6%	-4 억	-
케이사인	3,000	-5.1%	22.0%	0 억	-5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5.01	0.2%	5.5%
MSCI Internet	196.46	-0.2%	28.6%
MSCI IT Services	125.82	0.0%	6.9%
MSCI Software	183.36	0.4%	12.1%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754.77	-0.9%	42.2%
Facebook	106.49	-0.6%	36.5%
Tencent	152.00	-1.6%	35.1%
Baidu	194.01	-3.1%	-14.9%
Yahoo	33.68	-1.5%	-33.3%
LinkedIn	254.52	1.5%	10.8%
Twitter	27.09	-4.2%	-24.5%
Weibo	17.82	0.1%	25.1%
SINA	51.25	-0.7%	37.0%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35.31	-2.1%	-15.7%
TCS	2,471.35	-1.4%	-3.4%
Accenture	104.88	-1.1%	17.4%
HP	13.87	-1.0%	-65.4%
Infosys	1,134.60	-0.3%	15.0%
Wipro	560.25	-1.7%	0.9%
NTT Data	5,900	0.3%	30.7%
Fujitsu	604.30	3.6%	-6.2%
CSC	67.43	-0.5%	6.9%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0,820	4.0%	65.2%
EA	70.94	-2.0%	50.9%
Blizzard	34.05	-2.7%	69.0%
NEXON	1,716	1.4%	52.5%
NAMCO	2,819	1.7%	9.9%
King	17.84	0.2%	16.1%
Konami	2,906	2.1%	30.9%
Square Enix	3,125	-1.6%	24.6%
GungHo	400	0.3%	-9.3%
DeNA	1,916	0.3%	32.5%
Sega	1,295	3.4%	-16.8%
Take-Two	32.97	-3.6%	17.6%
Zynga	2.52	-1.9%	-5.3%
Ubisoft	26.99	-3.7%	77.9%
Gree	583	1.6%	-19.5%
Changyou	21.51	0.6%	-21.4%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54.16	-1.4%	16.6%
Oracle	40.10	-1.3%	-10.8%
SAP	78.84	0.1%	13.2%
EMC	25.83	-0.5%	-13.1%
Salesforce	78.22	-1.5%	31.9%
Adobe	89.80	-1.0%	23.5%
Vmware	59.46	-0.1%	-27.9%
Intuit	97.51	-0.8%	5.8%
Symantec	20.12	-2.2%	-21.6%
CA	27.07	-1.2%	-11.1%
Citrix	80.41	-2.0%	26.0%
Autodesk	63.51	-0.6%	5.7%
Synopsys	51.19	-0.7%	17.8%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76 억	컴투스	-94 억
엔씨소프트	48 억	SK	-57 억
위메이드	24 억	삼성에스디에	-30 억
다우기술	17 억	카카오	-25 억
한국정보인증	14 억	웹젠	-23 억
한국전자인증	12 억	게임빌	-13 억
유비케어	7 억	코나아이	-13 억
SGA	5 억	처음앤씨	-7 억
라운시큐어	4 억	엑토즈소프트	-5 억
이니텍	3 억	선데이토즈	-4 억
조이시티	3 억	인피니트헬스	-4 억
한국사이버결	3 억	아프리카TV	-4 억
와이디온라인	2 억	다날	-3 억
네오위즈게임	2 억	더존비즈온	-3 억
캔들미디어	1 억	파티게임즈	-3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네오위즈게임	31 억	SK	-112 억
컴투스	14 억	삼성에스디에	-50 억
더존비즈온	14 억	다우기술	-19 억
엔씨소프트	11 억	NAVER	-18 억
게임빌	3 억	NHN엔터	-15 억
신세계 I&C	2 억	엑토즈소프트	-14 억
카카오	2 억	위메이드	-11 억
유비벨록스	1 억	KG이니시스	-9 억
크레듀	1 억	한국사이버결	-7 억
브리지텍	1 억	아프리카TV	-6 억
골프존	1 억	대아티아이	-6 억
다나와	1 억	민앤지	-6 억
포스코 ICT	0 억	케이사인	-5 억
원스	0 억	파티게임즈	-4 억
데브시스템즈	0 억	넥슨지티	-4 억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카카오	-3.4%	최근이슈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 진출 소식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카카오택시'로 도로 위를 점령한 카카오가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 블랙'에 이어 내년 상반기 '카카오 드라이버' 출시를 공식 선언했다. 카카오는 지난 5일 대리운전 O2O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의 내년 상반기 출시를 발표했다. 지난 3월말 출시한 카카오택시가 누적 호출 3000만건을 돌파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자 생활 밀착형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카카오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갖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의 올 3분기 실적어오는 12일 발표될 가운데 광고 비수기, 게임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는 실적 눈높이를 크게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음 달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선정을 앞두고 여러 악재도 겹겹이 터지고 있어 이상향 기대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 출시 소식으로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렸고,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김범수 의장의 해외 도박설, 이석우 전 대표 기소, 자회사(록앤롤)의 저작권 도용 논란 등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리운전 사업 진출을 선언하기 이전부터 시장독점을 우려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출시 발표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 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진행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지난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 등 수도권 5개 대리운전 기사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 대리기사들은 카카오 드라이버의 등장으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업체들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서는 올해 초 카카오가 인수한 록앤롤의 '김기사'가 SK플래닛 T맵의 지도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기사'는 지난 2011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T맵 측과 계약을 체결해 지도 관련 DB를 사용해왔고, 지난 9월 계약이 만료된 바 있다.

이후 '김기사'는 기존 DB를 모두 삭제하고 자체 제작한 지도를 이용해 서비스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도에서는 여전히 T맵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사'는 현재 카카오택시의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로도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카카오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 이석우 전 대표와 김범수 의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법정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이로 인해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과 관련한 이슈는 카카오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문제"라면서 "여러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심사와 판단 자체는 회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대해서 함부로 접치진 않겠다"고 말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공공 클라우드 도입 초읽기, "2018년엔 40%가 이용"

국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관과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하도록 도입 체계 및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교육이나 선거관리 등 클라우드 특성에 적합한 공공 분야를 발굴, 내년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9개의 선도과제를 선정할 상태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는 약 40%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2016년~2018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1단계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2019년~20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하루 전인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재우 미래부 2차관은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 간 4조 6000억원(이중 공공부문은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세부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선제 도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조달체계와 보안인증제를 마련해 내년부턴 본격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게임빌	-4.7%	실적발표

게임빌, 3분기 영업손실 15억원, “해외 서비스 투자로 적자전환”

게임빌은 3분기 영업손실이 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고 당기 순이익은 57억원으로 41.3% 줄었다. 회사 측은 3분기 영업손실이 국내외 마케팅 활동 강화, 글로벌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빌은 3분기 누적으로 매출 1113억원, 영업이익 3억원, 당기순이익 163억원을 달성했다. 해외 매출은 ‘드래곤 블레이즈’, ‘MLB 퍼펙트 이닝 15’ 등 글로벌 신작들의 성과에 힘입어 3분기 누적 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지역별로 아시아·태평양과 북미·유럽이 각각 130%, 44% 성장해 해외 매출 비중이 2분기 연속 60%를 넘었다.

게임빌은 ‘제노니아S: 시간의 균열’, ‘크로매틱소울’, ‘나인하츠’, ‘몬스터피커’ 등 자체 개발 대작과 ‘애프터펄스’ 등 고퀄리티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게임빌 관계자는 “제노니아S는 누적 5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검증된 시리즈 브랜드이며 애프터펄스는 고퀄리티 모바일 FPS의 성공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데빌리언’, ‘아키에이 지’ 등 유명 PC 온라인게임의 IP를 활용한 신작 모바일게임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엔씨소프트	-0.7%	최근이슈

‘포스트 리니지’ 노린다, IP 활용에 주목한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포스트 리니지’ 발굴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간판 온라인게임이자 브랜드인 리니지를 잇는 대형 지적재산권(IP)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웹툰 업체에 잇단 투자를 하고 있다. 웹툰의 게임화, 게임의 웹툰화 등 다양한 IP의 활용을 고민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레진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 재담미디어에도 투자를 결정했다. 각각 50억원과 15억원 규모다. 만화기획제작 매니지먼트 회사인 재담미디어의 경우엔 웹툰 IP를 적극 활용하려는 엔씨소프트의 의지가 담겼다.

재담미디어 측은 “지난 7월에 투자 얘기가 있었고 10월 초에 결정이 났다”며 “게임 스토리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거나 게임화가 괜찮다면 (엔씨소프트가)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상호 IP 활용의 메인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김창현 홍보팀장은 자사 IP 전략에 대해 “리니지가 만화에서 시작돼 게임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리니지2, 리니지 이터널까지 이어져 계속해서 IP 브랜드의 힘이 커지고 있다”며 “리니지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IP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IP 접근법은 엔씨소프트가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둔 온라인게임 마스터엑스마스터(MX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XM은 각각의 캐릭터가 부각된 전략대전게임이다. 여기엔 캐릭터마다 IP가 되길 바라는 엔씨소프트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마블코믹스처럼 캐릭터 하나가 각각의 IP가 되고 뭉치면 어벤져스 IP가 되는 식이다. 엔씨소프트가 이번 지스타 전시부스를 MXM 캐릭터 각각의 특색을 살려 꾸미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오는 13일 지스타 현장에서 최초 공개될 ‘블레이드&소울 뮤지컬’도 IP 활용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블소 뮤지컬은 엔씨소프트가 국내 정상급 제작진을 투입해 지난 6개월에 걸쳐 야심차게 준비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MXM 게임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며 “여러 업체들과 제휴해 지스타 부스를 꾸민 것도 MXM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블소 뮤지컬에 대해선 “블소는 스토리텔링과 OST 작업이 잘돼있다. 남경주 예술감독도 음악을 들어 보고 뮤지컬 제작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게임이 뮤지컬로 연결되고 이것이 또 다른 IP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10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1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1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